李白〈登覽〉三十六首 譯解(1)*

- 제1수에서 제6수까지

趙得昌, 趙成千**

〈目　　次〉

1. 서론
2. 본론
1) 登錦城散花樓(蜀中)　2) 登峨眉山
3) 大庭庫(魯中)　4) 登單父陶少府半月臺
5) 天台曉望(吳中)　6) 早望海霞邊
3. 결론

1. 서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李白 시문집은 북송 때 成都에서 간행한 '宋蜀本'으로, 이는 북송의 宋敏求가 편집한《李太白文集》을 曾鞏이 나름대로 순서를 조정하여 편집한 판본이다. 송촉본《이태백문집》에서 시가 부분은 먼저 '古風 59수'와 악부시를 실은 후 그 다음부터는 모두 내용별로 나누어 묶은 '分類詩集'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판본의 영향력은 강력해서 원대 蕭士贇, 청대 王琦 등 이후의 주요한 이백시문집이 이 형식을 따르고 있다.

송촉본《이태백문집》은 제19권에 '登覽' 항목을 설정하여 36수를 싣고 있다. 등람시는 산이나 누대 등 높은 곳에 올라 사방에 보이는 광경을 묘사하고 일어나

* 이 논문은 '韓國李白講讀會'의 발표와 토론을 거친 후,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최종 책임 교열한 것이다. 이 논문의 작성과 교열에는 이동향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소중한 의견과 조언이 반영되었음을 밝힌다.

** 협성대 부교수, 을지대 교수(교신저자 sczhao1960@gmail.com)

www.kci.go.kr

는 감회를 표현한 작품이다. 이 제재는 劉勰이 옛말을 인용하여 "높이 올라 시를 지을 수 있다면 대부라 할 수 있다(登高能賦, 可以爲大夫)"라고 했듯이, 중국의 고대문화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발전해 온 중국고전시의 주요한 제재 가운데 하나이다. 시의 제목에는 '登'이나 '望'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본고는 '등람'의 제1수부터 제6수까지 모두 6편을 원문을 제시하고 逐句 번역하고 註釋을 달았으며, 이어서 校記, 詳釋, 解說을 붙였다. 原文은 宋蜀本을 저본으로 하였으며, 校勘은 詹鍈 主編의《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을 참고하였다. 번역은 직역을 기본으로 하되 의미가 순통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글의 언어적 질서 속에서 맥락과 의미를 살리는 의역을 보조적으로 하였다. 주석은 시적 외연을 가능한 한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근거와 전고는 물론 전인이 사용한 용례까지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번잡하지 않도록 하였다. 解說은 시에 대한 해제와 詩旨에 대한 역대의 주요한 의견을 덧붙여 시의 의미를 다각도에서 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 본론

1) 登錦城散花樓(蜀中) 금성 산화루에 올라(촉 땅에서)

日照錦城頭,[1] 해가 금관성의 성머리 비추고
朝光散花樓.[2] 아침 햇살에 산화루 빛나네.

---

1) 錦城 : 錦官城의 약칭으로 옛 터는 지금의 四川省 成都市 남쪽에 있다.《元和郡縣志》卷31〈劍南道成都府成都縣〉에 "금성은 성도현의 남쪽 10리에 있다(錦城在縣南一十里)"라고 하였다. 成都는 옛날에 大城과 少城이 있었다. 少城은 大城의 서쪽에 위치하며 錦官城 또는 錦里라고도 하였는데 후에 통칭하여 성도라 하였다.

2) 散花樓 :《成都記》에 "산화루는 마하지에 있으며, 수나라 말기 촉왕 楊秀가 지었다(散花樓在摩訶池上, 隋末蜀王秀所建)"라고 하였으며,《四川通志》卷26〈古蹟成都府華陽縣〉에 "산화루는 화양현(현재 成都 남쪽의 雙流縣으로 편입됨)의 동북쪽 끝자락에 있다(散花樓在縣東北隅)"라고 하였다. 참고로, 마하지에 대해서는《方輿勝覽》卷51成都府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躍龍池는 성도현에 있는 연못인데, 蜀王 楊秀가 成都子城을 지을 때 여기서 흙을

金窗夾繡戶, 금빛 창은 아로새긴 문 끼고 있고
珠箔懸瓊鉤.[3] 주렴은 옥고리에 걸려있네.
飛梯綠雲中,[4] 날 듯한 층계는 푸른 구름 속에 걸려 있고
極目散我憂. 저 멀리 바라보자 내 근심 흩어지네.
暮雨向三峽,[5] 저녁 비는 삼협으로 향하고
春江繞雙流.[6] 봄강물 쌍류를 감돌아 흐르네.
今來一登望, 지금 올라와 바라보니
如上九天游.[7] 높은 하늘에 올라 노니는 듯하구나.

파내 생긴 구덩이가 연못이 된 것이라고 하면서, 서역의 승려가 그것을 보고 '摩訶宮毗羅'라고 하였다. 아마도 '摩訶'는 '크다'이고, '宮毗羅'는 '용'이니 연못이 크고 넓어서 용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하여 '마하지'라고도 불렀다(躍龍池在成都縣池. 隋蜀王秀取土築廣子城因爲池. 有胡僧見之曰: 摩訶宮毗羅. 蓋胡僧摩訶爲大, 宮毗羅爲龍, 謂此池廣大有龍耳, 又云摩訶池)". 이상의 기록을 종합해볼 때, 마하지에 있는 산화루는 둘 다 같은 시기에 지어졌으며, 그 위치는 화양현의 동북쪽과 성도현의 서남쪽이 맞닿는 경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이 구절은 아침 햇살에 산화루가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형용하였다.

3) 珠箔 : 주렴. ○ 瓊鉤 : 옥으로 만든 발의 고리.

4) 이 구절은 높은 누대의 층계를 묘사하여 이것에 오르는 것이 마치 푸른 구름 속에 있는 듯함을 말하였다.

5) 三峽 : 《太平寰宇記》에 巴東의 삼협은 西峽·武峽·歸峽이라 했다. 禹가 이곳을 터서 강의 물길을 열었는데, 만 길이나 되는 험준한 산을 깎자 햇빛이 얼핏 보이며 비구름과 분간이 안 될 정도였다고 한다. ○ '向三峽'은 산화루의 높은 누대에 올라 바라보니 멀리 삼협까지도 굽어보임을 말했다.

6) 雙流 : 郫江(지금의 성도시 동북쪽)과 流江(지금의 성도시 남쪽)의 두 개의 강으로 볼 수도 있고, 이 두 강에 의해 이름 붙여진 쌍류현의 지명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두 개의 강이라는 의미를 담되, 윗구의 '삼협'과 대를 이루어 '쌍류'라는 지명으로 번역하였다. 《文選》권4에서 左思의 〈蜀都賦〉에 "(비강과 유강) 두 강의 두 물줄기를 두르고, 첩첩이 험준한 아미산을 막아섰네(帶二江之雙流, 抗峨眉之重阻)"라고 한 것에 대해, 秦나라 때 "蜀의 太守 李氷이 離堆를 뚫어 두 강물을 연결하여 농지를 개간하니 백성들이 이로움을 누렸다(蜀守李氷鑿離堆, 穿兩江, 爲人開田, 百姓饗其利)"라고 풀이하였다. 《元和郡縣志》卷31〈成都府雙流縣〉에는 "쌍류현은 북쪽으로 성도부까지 40리이다. 원래 漢나라 때 廣都縣이었다가 隋나라 仁壽元年에 煬帝의 휘를 피하여 '쌍류'로 고쳤는데, 이 현이 두 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촉도부〉의 '帶二江之雙流'를 취하여 이름하였다(北至府四十里. 本漢廣都縣也. 隨仁壽元年, 避煬帝諱改爲雙流, 因此縣在二江之間, 仍取〈蜀都賦〉云'帶二江之雙流'爲名也)"라고 하였다.

7) 九天 : 높은 하늘.

www.kci.go.kr

〈校記〉

제4구의 '瓊'은 '銀'으로 되어있는 판본도 있다.

제6구의 '憂'는 '愁'로 되어있는 판본도 있다.

제9구의 '來'는 '夜'로 되어있는 판본도 있다.

〈詳釋〉

떠오르는 해가 錦官城의 성곽 위로 비춰들기 시작하자, 아침 햇살에 금관성의 높은 산화루가 반짝반짝 빛난다.

누대의 화려한 조각으로 아로새겨진 문들 사이로 창이 햇살 받아 금빛으로 물들고 있고, 구슬 장식의 화려한 주렴은 옥고리에 늘어뜨려져 있다.

구름 속까지 뻗은 높은 층계를 오르자 마치 하늘을 나는 듯, 높이 올라 눈길 끝 간 데 없이 바라보니 나그네 근심이 흩어지며 가슴이 후련해진다.

저녁 무렵 내리던 비가 삼협으로 향해 가는 것이 굽어보이고, 따사로운 봄날 가까이 있던 비구름이 물러가자 강물이 쌍류를 감돌아 흘러가는 것이 보인다.

지금 산화루에 올라와 바라보니, 높은 하늘에 노닐며 세상 벗어나 속세를 굽어보는 것 같다.

〈解說〉

이백이 720년 봄, 蜀땅을 유람하며 錦城 散花樓에 올라 지은 것이다. 시는 묘사대상에 따라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부터 제4구까지의 첫째 단락은 산화루의 모습을, 제5구부터 제8구까지의 둘째 단락은 누대에 올라 바라본 경치를 묘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두 구의 셋째 단락은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며 일어나는 興趣로 마무리 지었다. 시의 내용 전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구에서 錦城을 조명하고 제2구에서 바로 散花樓에 초점을 맞춘다. 제3・4구로 옮겨가면서 햇빛을 받아 빛나는 산화루의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이 세부적으로 드러난다. 그 다음 제5・6구는 누대의 화려한 모습을 따라 하늘 높이 뻗은 층계를 오르자, 순간 시야가 확 트이면서 눈길 끝닿는 遠景을 가슴 속 후련함으로 표현하

www.kci.go.kr

였다. 시선은 다시 당겨져 제7·8구는 三峽과 雙流의 中景을 포착한다. 여기서 이백은 유유히 흐르는 강줄기를 굽어보며 태고적 삼협을 뚫었던 禹와 금관성의 두 물줄기를 통하게 했던 李氷으로 인해 여러 상념에 잠겼을 지도 모른다. 마지막의 두 구는 이 모든 것을 총괄하며 높이 오른 主旨가 내포되어 있다.

이에 대해, 嚴評本에 기재된 明人의 비평에 "격조가 평온하지만 기발한 표현 없이도 별도의 색다른 의미를 만들어내었으니 훌륭하다(格平穩, 然無奇, 結得別出意乃佳)"라고 한 것을 참고할 만하다.

2) 登峨眉山[8] 아미산에 올라

蜀國多仙山, 촉 땅에 신선산이 많지만
峨眉邈難匹.[9] 까마득한 아미산 짝하기 어렵네.
周流試登覽,[10] 두루 돌며 한번 올라 바라보니
絶怪安可悉. 절묘하고 기이함 어찌 다 살펴볼까?
青冥倚天開,[11] 짙푸른 산봉우리 하늘에 기대어 펼쳐있고
彩錯疑畵出.[12] 울긋불긋한 산 빛은 그려낸 듯 신비롭네.
泠然紫霞賞,[13] 사뿐사뿐 보라 빛 노을 속에 노니니

8) 峨眉山 : 四川省 盆地의 서남쪽 樂山市와 峨眉山市 사이에 있다. 大峨山, 二峨山, 三峨山, 四峨山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峨眉山은 해발 3099m의 大峨山을 가리킨다.
9) 邈 : 아득히 길다(綿延遙遠: 郁賢皓), 까마득히 높다(高遠: 詹鍈), 매우 뛰어나다(迥然超絶: 朱諫) 등의 뜻으로 풀이된다. 번역은 詹鍈의 설을 따랐다.
10) 周流 : 周遊와 같다. 〈離騷〉에 "하늘을 두루 돌아다니다 내가 곧 내려왔네(周流乎天余乃下)"라고 하였다.
11) 青冥 : 王琦는 '青冥'이 屈原 〈悲回風〉의 "짙푸른 하늘을 바탕삼아 무지개를 펼치고, 드디어 어느덧 하늘을 쓰다듬네(據青冥而攄虹兮, 遂倏忽而捫天)"에 나오는 말로서 본래 '하늘'을 뜻하지만, 이 시에서는 '山峰'을 가리키는 말로 차용되었다고 하였다. 李白은 〈夢遊天姥吟留別〉에서 "하늘은 밑이 없이 넓고, 해와 달은 신선들의 금은대를 환히 비춘다(青冥浩蕩不見底, 日月照耀金銀臺)"라 하여 '青冥'을 여전히 '하늘'의 뜻으로 쓰고 있으나, 이 시에서는 王琦의 설처럼 산봉을 뜻하는 말로 보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다.
12) 彩錯 : 색채가 뒤섞이다. 여기서는 산 빛을 가리킨다.
13) 泠然紫霞賞 : 泠然은 가볍고 날랜 모양. 《莊子·逍遙遊》의 "대저 열자는 바람을 타고 다녔는데 사뿐사뿐 잘하였다(夫列子御風而行, 泠然善也)"라는 글에 대하여 郭象은 "泠然은 輕妙한 모습(泠然, 輕妙之貌)"이라고 주석하였다. 紫霞는 보라 빛 노을, 또는 신선이 사는 곳으로,

果得錦囊術.[14] 과연 비단주머니속의 신선술을 얻은 듯하구나.
雲間吟瓊簫, 구름 속에서 옥퉁소 불고
石上弄寶瑟. 바위 위에서 거문고 타네.
平生有微尙,[15] 평소에 소박한 바람 있었으니
歡笑自此畢.[16] 세간의 즐거움은 이제부터 끝났네.
煙容如在顔,[17] 신선의 기운이 얼굴에 서린듯하고
塵累忽相失. 속세의 매임은 홀연히 사라졌네.

여기서는 신비한 구름에 싸여있는 산 정상을 가리킨다. 江淹의 〈許徵君詢自序〉에 "일시에 세속의 구속을 밀쳐내고, 사뿐히 허공에서 노니네(一時排冥筌, 泠然空中賞)"라는 글이 있다.

14) 錦囊術 : 비단주머니 속에 담긴 신선이 되는 방술. 《太平廣記》 卷3에 《漢武內傳》의 다음과 같은 글이 인용되어 있다. "황제가 서왕모의 책 상자 속에 책 한 권이 보라색 비단주머니에 담겨있는 것을 보았다. 황제가 물었다. '이 책은 신선의 신령한 방술입니까? 그 세목은 보지 않겠으니 한번 대략 볼 수 있겠습니까?' 서왕모가 그 책을 꺼내어 보여주며 말했다. '이것은 오악의 참된 모습을 그린 지도이다. 어제 청성의 여러 신선들이 나에게 와서 얻기를 청하였으니 이제 마땅히 지나가다가 주어야 한다. 이 책은 삼천의 태상에서 나온 것으로 글이 신비하고 금지함이 엄중하다. 어찌 더러운 자질의 네가 마땅히 품어야 할 것이겠는가? 지금 너에게 《靈光生經》을 줄 터이니 이것으로 신과 통하고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황제가 내려와 땅에 절하며 굳게 청하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 그 뒤에 황제는 서왕모가 준 《五眞圖》와 《靈光經》 및 상원부인이 준 《六甲靈飛》十二事를 가지고 스스로 한 권의 책을 지어, 제경도와 함께 모두 황금 상자에 담고 백옥함에 넣은 다음 산호 축을 달고 보라 비단으로 싸서 백량대에 안치하였다(帝見王母巾笈中有一卷書, 盛以紫錦之囊. 帝問, '此書是仙靈方耶? 不審其目, 可得瞻盼否?' 王母出以示之曰, '此五岳眞形圖也. 昨靑城諸仙, 就吾請求, 今當過以付之. 乃三天太上所出, 文秘禁重, 豈汝穢質所宜佩乎？今且與汝《靈光生經》, 可以通神歡心也." 帝下地叩, 固請不已. …… 其後帝以王母所授《五眞圖》, 《靈光經》, 及上元夫人所授《六甲靈飛》十二事, 自撰集爲一卷, 及諸經圖, 皆奉以黃金之箱, 封以白玉之函, 以珊瑚爲軸, 紫錦爲囊, 安著柏梁臺)"

15) 微尙 : 微小한 志尙 또는 意願. 보통 謙詞로 사용한다. 여기서는 신선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리킨다. 謝靈運 〈初去郡〉의 "그대와 나는 소박한 뜻을 지녔으니, 서툰 재주를 지켜 헛된 이름 거절하네(伊余秉微尙, 拙訥謝浮名)"와 白居易 〈聞崔十八宿予新昌弊宅〉의 "평생에 소박한 뜻 있으나, 그대나 나나 외로움이 많구나(平生有微尙, 彼此多幽獨)"에 나온다.

16) 歡笑自此畢 : 두 가지 서로 다른 해설이 있다. 주간은 "歡笑는 기쁨이다. 畢은 다한다는 뜻이다. 평생의 뜻이 여기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다(歡笑, 喜也. 畢, 盡也. 平生之志於此盡也)"라고 하여, 평소의 꿈이 이루어져 더 이상 즐거울 수가 없다는 뜻으로 보았다. 그러나 郁賢皓는 이백이 신선이 되고자 속세를 떠나 은거를 하려는 때에 세속의 즐거움은 이제부터 끝났음을 말한 것으로 보았다. 용례는 顔延之 〈秋胡行〉에 "좋은 운세가 나를 따르니, 기쁜 얼굴은 이제 끝났네(嘉運旣我從, 歡顔自此畢)"라는 시구에 보인다.

17) 煙容 : 안개가 서린 얼굴. 신선의 얼굴을 가리킨다.

www.kci.go.kr

儻逢騎羊子,[18] 만약에 양을 탄 신선을 만난다면
携手凌白日.[19] 손잡고 빛나는 해 위를 날리라.

〈校記〉

제4구의 '悉'은 '息'으로 되어있는 판본도 있다.
제7구의 '賞'은 '想'로 되어있는 판본도 있다.
제9구의 '吟'은 '吹'로 되어있는 판본도 있다
제16구의 '凌'는 '弄'으로 되어있는 판본도 있다.

〈詳釋〉

촉 지역에는 신선들이 살 법한 산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미산은 까마득히 높고 더욱 신비로워 다른 산들이 필적할 바가 아니다.

내가 이 산의 이곳저곳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올라가 구경해보니, 그 절경과 기이한 경치가 모두 다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검푸른 산봉은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져 있고, 오색으로 뒤섞인 산색은 마치 누군가가 물감으로 그려놓은 듯하다.

산위에 사뿐히 올라 보라 빛 노을 속에서 감상하노라니, 과연 비단주머니에 담긴 신선되는 비방을 얻은 듯하다.

그리하여 구름 속에서 옥퉁소를 불고, 바위 위에서 아름다운 거문고를 연주한다.

---

18) 騎羊子 : 옛날 아미산에 양을 타고 와서 신선이 된 葛由을 가리킨다. 또는 일반적으로 신선을 가리키기도 한다.《列仙傳・葛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葛由는 羌族 사람이다. 주 성왕 때에 나무를 깎아 양을 만들기를 잘하여 이를 팔았다. 어느 날 그는 나무 양을 타고 서촉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촉의 왕후와 귀인들이 따라서 綏山으로 올라갔다. 수산은 아미산 서남쪽에 있는데 끝없이 높았다. 따라갔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모두 신선의 도를 얻었다(葛由, 羌人也. 周成王時, 好刻木作羊賣之. 一旦, 乘木羊入西蜀. 蜀中王侯貴人追之上綏山. 綏山在峨眉山西南, 高無極也. 隨之者不復還, 皆得仙道)" 그리고 陳子昂의《感遇》제33수에, "양을 타고 훨훨 나는 신선이여, 어찌하여 아미산에 있는가?(飛飛騎羊子, 胡乃在峨眉)"에도 나온다.

19) 携手凌白日 : 陳子昂의〈與東方左史虯修竹〉에 다음과 같이 유사한 구절이 있다. "손잡고 밝은 해위로 오르고, 멀리 나들이하여 임금계신 곳에서 노니네(携手登白日, 遠游戲赤城)"

www.kci.go.kr

나는 세상의 부귀와 명리를 가지기 보다는 신선이 되고픈 평생의 소박한 꿈을 지녔으니, 이 이후로는 세상의 즐거움과 웃음을 끊고 신선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

내 얼굴은 마치 신선의 기운이 서린 듯한 모습으로 바뀌었고, 속세에서의 얽매임도 한순간 사라져버렸다.

만약 내가 그 옛날 양을 타고 이 산에 들어와 신선이 되었던 갈유를 만나게 된다면, 그와 함께 손잡고 저 태양이 빛나고 있는 하늘 위를 날아다닐 것이다.

〈解說〉

이 시는 이백이 20살이던 開元 8년(서기 720년)에 아미산을 여행할 때 지은 것으로, 형식은 五言古詩이다.

이 시의 내용은 4구씩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단락에서는 아미산의 최고의 仙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언급했고, 둘째 단락에서는 아미산의 신비스런 장관과 이에 몰입된 이백 내면의 羽化登仙 또는 仙化을 그렸으며, 셋째 단락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아미산에서의 신선 수양의 정경과 기쁨을 나타냈고, 넷째 단락에서는 신선으로의 자기완성과 현실의 초탈을 노래하였다.

이 시는 山水와 遊仙을 함께 다루고 있다. 대개 전통적으로 산수시와 유선시는 비교적 명확히 나누어지지만 이백의 시에 있어서는 이 두 요소가 하나의 시에 합쳐지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이백의 관념에서 산수와 신선은 서로 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의 중점은 山水보다는 遊仙에 있다. 즉 산수를 빌어 신선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소망 또는 탈속한 삶에 대한 염원을 읊은 것이다. 그러나 그 유선의 성격도 꿈이나 상상을 통해 전설과 설화의 내용을 부연하는 기존의 유선시와 다르다. 즉 이 시는 작자 자신이 내면에서 직접 신선이 되어 그 경지를 체험하는 심리적 정신적 환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자아와 신선의 전환, 또는 자신과 신선의 직접적 조우 등과 같은 환각적인 신선체험 모드가 이백 유선시의 골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백의 유선시는 초현실주의적 경향의 가능성

www.kci.go.kr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大庭庫(魯中) 대정고(노 땅에서)

朝登大庭庫, 아침에 대정고에 올라보니
雲物何蒼然![20] 구름 빛깔은 얼마나 창연한가!
莫辨陳鄭火,[21] 진나라와 정나라에 불이 났는지 판별할 수 없는데
空霾鄒魯煙.[22] 하늘은 뿌옇고 추노 지방은 안개로 자욱하구나.
我來尋梓愼,[23] 나는 이곳에 와서 옛 노나라의 재신과 같이
觀化入寥天.[24] 조화를 관찰하고 적료한 경지에 들어가고자 하네.
古木翔氣多,[25] 오래된 나무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기고
松風如五絃.[26] 소나무 바람소리는 오현금 소리 같구나.

---

20) 雲物 : 구름의 색채. 《周禮·春官》에 "다섯 색의 구름으로 길흉을 판별하고, 가뭄과 홍수를 점치니, 풍년과 흉년을 알려주는 햇무리 형상이다(以五雲之物, 辨吉凶、水旱降, 豐荒之祲象)"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주석에서 운물은 태양 옆에 떠도는 구름 기운의 색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21) 陳鄭火 : 진나라와 정나라에 불이 나다. 노나라의 재신이 대정고에 올라 망기술(望氣術)로 주위를 바라보고는 송, 위, 진, 정나라가 화재가 날 것을 예언한 일을 말한다. 《左傳·昭公十八年》에 "송, 위, 진, 정나라에 모두 불이 났다. 재신이 대정씨의 곳간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고는 말했다. '송, 위, 진, 정나라이다.' 수일 후 모두 와서 화재가 났다고 보고했다(宋、衛、陳、鄭皆火. 梓愼登大庭氏之庫以望之, 曰: "宋、衛、陳、鄭也." 數日皆來告火)"라고 하였다.

22) 霾(매) : 먼지. 여기에서의 뜻은 '가리다'이다. ○ 鄒魯 : 추 지방과 노 지방. 曲阜 일대를 가리킨다.

23) 梓愼(재신) : 춘추시대 노나라의 대부.

24) 觀化 : 조화의 변화를 보다. 《莊子·至樂》에 관련 어휘가 나온다. 支離叔과 滑介叔이 명백(冥伯)의 언덕, 곤륜의 터, 황제가 쉬었던 곳을 둘러보고 있을 때 갑자기 활개숙의 왼쪽 팔꿈치에서 버드나무가 자라났다. 이에 지리숙이 싫지 않느냐고 묻자 활개숙이 "나와 그대는 조화의 변화를 보고 있으며, 그것이 지금 내게 미치고 있으니, 내가 어찌 이것을 싫어하겠는가!(且吾與觀化而化及我, 我又何惡焉!)"라고 대답하였다. ○ 入寥天(입료천) : 하늘처럼 적막한 경지로 들어가다. 《莊子·大宗師》에서 유래한 어휘로. "추이에 몸을 맡기고 변화에 따르면, 곧 하늘과 같이 적막한 경지에 들어간다(安排而去化, 乃入於寥天一)"라고 하였다.

25) 翔氣(상기) : 휘날리는 바람의 기운. 일부 학자들은 朔氣(삭기)의 오기라고 보기에, 여기서는 이에 따른다.

26) 五絃 : 다섯 현, 곧 거문고. 여기서는 거문고 소리를 가리킨다. 《禮記·樂記》에 "예전에 순

www.kci.go.kr

帝圖終冥沒,[27] 대정씨의 업적도 결국 어둠 속에 사라졌으니
歎息滿山川. 나의 탄식이 산천에 가득 하여라.

〈詳釋〉

아침에 大庭氏(神農氏)의 곳간이 있는 유적지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니, 태양 주위에 걸린 구름의 빛깔은 어둡기만 하다.

예전에 춘추시대 노나라 대부 梓愼은 대정고에 올라 望氣術로 진나라와 정나라 등에 화재가 날 것을 예언했는데, 지금은 그저 추 지방과 노 지방에 구름이 걸려 있어 하늘이 어두워 보이기만 한다.

나는 지금 이곳에 와서 재신의 자취를 찾으며, 그가 했듯이 만물의 변화를 관찰하고 하늘처럼 적막한 경지에 들어가고자 한다.

오래된 나무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소나무에 쓸리는 바람소리는 오현금을 뜯는 소리 같다.

고대에 대정씨가 이룩한 업적도 결국에는 어둡게 사라졌으니 나는 그저 산천을 마주하고 오래도록 탄식할 뿐이다.

〈解說〉

曲阜에 있는 신농씨의 유적지인 대정고에 올라 멀리 바라보고 지은 시이다. 이백은 춘추시대 노나라 대부 梓愼이 대정고에 올라 望氣術로 이웃 나라들에 화재가 날 것을 예언한 일을 상기하고, 자신도 옛 현인의 높은 경지를 본받아 현실의 정세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말미의 2구는 고대의 일을 말하고 있지만, 고대의 뛰어난 업적도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는 데서 역사의 滄桑感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백이 살고 있는 당나라는 신농씨의 시대와는 다르다는 완곡한 비판을 읽을 수도 있다. 이백이 東魯에 체류하면서 지은 시는 현재 약 180여 수 남아있으며, 그 기간은 대략 736~742년과 745~747년인데, 이 시 역시 이 기간에 지었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이 오현금을 만들어 〈남풍〉을 노래했다(昔者舜作五絃之琴, 以歌南風)"라고 하였다.
27) 帝圖 : 제왕의 계획. 홍업(洪業). ○ 冥沒 : 어두운 모양.

www.kci.go.kr

4) 登單父陶少府半月臺[28] 선보현 도소부의 반월대에 올라

陶公有逸興,[29] 도공은 고상한 흥취 있는지라
不與常人俱. 속인과는 함께하지 않는다네.
築臺像半月,[30] 반달 같은 대를 지었으니
迥向高城隅.[31] 저 멀리 높은 성 귀퉁이에 솟아 있네.
置酒望白雲, 술상 놓고 흰 구름 바라보자니
商颸起寒梧.[32] 가을바람은 쓸쓸한 오동나무에서 이는구나.
秋山入遠海, 가을 산은 저 멀리 바다로 들어가고
桑柘羅平蕪.[33] 뽕나무는 너른 들녘에 늘어섰네.

---

28) 單父(선보) : 춘추시대 노나라의 읍 이름. 지금의 산동성 單縣(선현) 남쪽에 있다. 선보는 공자의 제자 宓子賤(복자천)의 고사를 비롯하여 많은 고사가 전해지는 곳이다. 《孔子家語·七十二弟子解》에 따르면 공자의 제자인 宓子賤(복자천)이 선보의 宰(재)가 되어 백성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자 공자가 그를 칭찬하였다고 한다. 후인들이 복자천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복자천이 琴을 타던 곳에 '琴臺'라는 대를 쌓았고, 현종 때에는 陶沔(도면)이 이곳을 개수하고 복자천과 巫馬施를 奉祀하는 二賢祠를 세웠다 한다. '半月臺'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도면이 重修하면서 臺의 앞부분을 직선으로 하고 뒷부분을 둥글게 하여 반달 모양을 닮았기 때문이다. ○ 少府 : 縣尉. 현령은 明府라 하였고, 현위는 현령 밑에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소부'라 하였다. ○ 半月臺 : 王琦는 《山東通志》를 인용하여 "반월대는 선현의 동쪽에 있는 옛 성터 동쪽 귀퉁이에 있으며 도면이 지은 것이라 전해진다(半月臺, 在單縣東舊城東. 唐少府陶沔所築)"라고 하였다.

29) 陶公 : 唐의 陶沔(도면). 도면은 開元 말에 활동하였으며, 李白, 孔巢父, 韓准, 裴政, 張叔明 등과 山東省 泰安府 徂徠山(조래산) 기슭의 竹溪에 살면서 함께 술 마시고 노래 불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竹溪六逸'이라 불렀다. 그러나 詹鍈은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에 있는 이 시의 〈題解〉에서 "도소부를 도면이라 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도공'이라 하면 晉의 陶侃(도간), 陶潛, 전설에 나오는 陶安公 등을 가리키기도 한다. ○ 逸興 : 속되지 않으면서도 호방한 정서.

30) 築臺 : 관망대를 세우다.

31) 迥(형) : 멀다. 높다. ○ 向 : 安旗는 "아래 네 구에서 보이는 풍경이 너무나도 高遠하기 때문에 '向'을 '出'로 바꾸어 쓰는 것이 옳다"라고 했다. 역자 또한 '向'을 '出'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 城隅 : 원래는 성벽 모퉁이를 병풍처럼 둘러싼 여장(女牆)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성 귀퉁이'라고 보았다.

32) 商颸(상표) : 가을바람. 《文選》 권29 陸機의 〈園葵詩〉에 "세월 흘러 봄바람 그치고 세모라 '商飆' 부네(時逝柔風戢, 歲暮商颸飛)"라는 구절이 있는데, 呂延濟는 "商颸는 秋風이다"라고 주석을 달았다. 궁상각치우 오음 중에서 '상'은 가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3) 桑柘(상자) : 뽕나무와 산뽕나무. ○ 平蕪 : 초목이 덤불처럼 우거진 들녘.

水色淥且明,[34] 물빛이 맑고 깨끗하여
令人思鏡湖.[35] 경호를 생각나게 하는구나.
終當過江去, 결국에는 강 건너 가야하건만
愛此暫踟躕.[36] 여기가 좋아 잠시 머뭇거리네.

〈校記〉

제4구 '迴向'의 '迴'은 '迴' 또는 '迴'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고, '向'은 '出'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6구 '商'은 '高'로, '起'는 '落'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전체적으로 "高颺飛落梧"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9구 '淥且明'의 '淥'은 '綠'으로, '明'은 '淸'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11구 '終當'의 '當'은 宋蜀本에서는 '常'이라 되어 있는데, 여러 판본을 참조하여 '當'이라고 바로잡았다.

〈詳釋〉

도면은 속되지 않으면서도 호방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라 일반 사람들과는 더불어 함께 놀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반달 닮은 반월대를 세웠는데 그 반월대는 높은 성 모퉁이에 있다.

그 반월대에 올라 술 한 잔 하며 흰 구름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기를 머금은 듯한 오동나무 사이에서 가을바람이 살포시 인다.

가을 빛 완연한 산들은 죽 이어져 저 멀리 바다로 빠져들고 뽕나무는 잡초 무성

34) 淥(녹) : 맑고 깨끗하다.
35) 鏡湖 : 浙江省 紹興市 會稽山 北麓에 있으며 주위가 300여리에 이른다.《元和郡縣志》권26〈越州會稽縣〉에 "경호는 후한 영화 5년(AD 140) 태수 마진이 만든 농업용 대형 저수지이다. 회계현과 산음현 경계에 만들어 물을 가두었으며 수심이 한 길이 넘었다(鏡湖, 後漢永和五年, 太守馬臻創立. 在會稽、山陰兩縣界築塘蓄水, 水高丈餘)"라고 하였다. 수면이 거울과 같아서 '경호'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백의〈登牛月臺〉시에 "水色綠且靜, 令人思鏡湖. 終當過江去, 愛此暫踟躕"라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 호수의 표면이 거울과 같기 때문에 '경호'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
36) 踟躕(주저) : 주저주저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양. 느리게 가는 모양.

www.kci.go.kr

한 들판에 가득 늘어서 있다.

물 빛깔이 너무나도 맑고 깨끗하니 보는 이로 하여금 거울 같은 수면 때문에 경호라는 이름이 붙은 호수를 생각나게 한다.

결국에는 이 강을 건너가야 하지만 이 풍광이 너무나도 좋아 건널까 말까 잠시 망설인다.

〈解說〉

郁賢皓는 "令人思鏡湖, 終當過江去"의 두 구절로 미루어 이 시는 天寶5년(746) 이백이 東魯에서 越中으로 남하할 때 지은 것이라 했다. 朱諫은《李詩選注》에서 "이 시는 평이하고 담백하지만 그 맛은 깊고 그윽하다. 비유해 말하자면 蘭蕙가 반드시 짙은 향기가 아니라 맑고 잔잔한 향기여도 사랑할만한 것과 같다(此詩平易簡淡, 而趣味悠長. 譬之蘭蕙, 不必穠馥, 而淸香自可愛矣)"라고 했다.

전반부 4개 구는 도소부가 쌓은 반월대에 대한 감상이고, 중반부 4개 구는 반월대에 올라서 보이는 풍광이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 4개 구는 반월대의 풍광을 보면서 떠오르는 경호의 감흥을 적었다. 시 전체적으로 '도공'이라 하면 도연명이 떠오르고, '일흥'이라 하면 도연명의 은일이 떠오른다. 아마도 도면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도연명에 비견하는 것이 아닐까 추론해본다.

5) 天台曉望(吳中) 천태산의 새벽 조망(오중에서)

天台隣四明,[37] 천태산은 사명산과 이웃하고

華頂高百越.[38] 화정봉은 월 땅에 우뚝 솟아 있네.

37) 天台: 지금의 절강성 天台縣 북쪽에 위치한 천태산을 가리킨다.《元和郡縣志》권26〈台州唐興縣〉에 "천태산은 당흥현 북쪽 10리에 있다(天台山, 在縣北一十里)"라고 하였고,《方輿勝覽》권8〈台州〉에는 "천태산은 태주현 서쪽 110리에 있다(天台山, 在台州縣西一百一十里)"라고 하였다. ○ 四明: 지금의 절강성 寧波市 서남쪽에 위치한 사명산을 가리킨다.《元和郡縣志》권26〈越州餘姚縣〉에 "사명산은 여요현 서쪽 150리에 있다(四明山, 在縣西一百五十里)"라고 하였다. 朱諫은 주석에서 "천태산과 사명산은 절강성 동부 지역 명산으로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이어 있다(天台四明, 浙東名山, 相隣而實相連也)"라고 하였다.

www.kci.go.kr

門標赤城霞,[39] 산문은 적성산 붉은 빛을 띠고
樓棲滄島月.[40] 누각은 달빛에 젖어 있네.
憑高遠登覽,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直下見溟渤.[41] 바로 아래 바다가 펼쳐 보이네.
雲垂大鵬翻,[42] 구름 드리우니 커다란 붕새가 날개를 펴덕이듯 하고
波動巨鰲沒.[43] 파도 요동치니 큰 자라가 물속에 잠겨 있는 듯하네.

---

38) 華頂: 《方輿勝覽》권8〈台州〉에 "화정봉은 천태현 동북쪽 60리에 있는데, 천태산의 8개 주요 봉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높이가 약 일만 장에 이르고 그 정상에 오르면 동쪽으로 푸른 바다를 바라볼 수 있어서 속칭 망해첨이라고 불렀으며, 초목이 울창하여 인간세상 같지 않으므로, 동진시기의 손작이 '오르내리며 이틀 밤을 머무는데 마치 신선세계에 이른 것 같았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華頂峰, 在天台縣東北六十里, 蓋天台第八重最高處, 高一萬丈, 絶頂東望滄海, 俗號望海尖, 草木薰郁, 殆非人世, 孫綽所謂'陟降信宿, 迄乎仙道.' 是也)"라고 하였다. ○ 百越: 백월은 지금의 강소성,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江浙閩粵) 일대를 말한다. 朱諫은 주석에서 "옛날 월나라에 수많은 읍이 있었으므로 백월이라고 했다(古越國有百邑, 故云百越)"라고 하였다.

39) 門標: 門은 門樓이며, 여기에서는 天姥寺(천모사)의 문루를 가리킨다. 標는 들어 올린다는 뜻이다. ○ 赤城: 산의 이름으로 지금의 절강성 천태현 북쪽 6리에 있으며, 천태산을 오르려면 반드시 거치는 길이다. 《方輿勝覽》권8〈台州〉에 "적성산은 태주현 북쪽 6리에 있으며, 일명 소산이라고도 한다. 그 위의 석벽이 모두 노을처럼 붉은 색을 띠고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면 마치 성벽 같이 보이니, 후세 사람들은 이 때문에 산 이름으로 붙였다(赤城山, 天台縣北六里, 一名燒山. 其上石壁皆如霞色, 望之如雉堞然, 故後人以此名山)"라고 하였다.

40) 滄島: 푸른 바다 위의 섬.

41) 直下: 아래로 내려다 보다. ○ 溟渤(명발): 중국신화전설 중의 溟海와 중국 북동지역의 내해인 渤海, 즉 넓고 큰 바다를 가리킨다.

42) 雲垂: 《莊子・逍遙遊》에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을 鯤이라고 한다. 그 곤은 매우 커서 몇 천리가 되는 지 알 수가 없다. 그 곤이 변하여 새가 되니, 그 이름은 鵬이다. 그 붕의 등은 넓어서 몇 천리나 되는 지 알 수가 없다. 붕이 힘차게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마치 하늘을 뒤덮은 구름과 같다(北冥有魚, 其名爲鯤. 鯤之大, 不知幾千里也. 化而爲鳥, 其名爲鵬. 鵬之背, 不知其幾千里也.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라고 하였다.

43) 巨鰲(거오): 《列子・湯問》에 "발해의 동쪽 몇 억만 리 인지도 모르는 곳에 커다란 골짜기가 있다. ……그 가운데 다섯 개의 산이 있는데, 대여 · 원교 · 방호 · 영주 · 봉래라고 한다. 그 산을 위 아래로 다 돌면 삼만 리에 이른다.……그 다섯 산은 뿌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물결을 따라서 위로 솟아올랐다가 아래로 가라앉아 떠다니며 잠시도 우뚝 서있지를 않았다. 신선들은 이를 괴롭게 생각하여 천제에게 호소하였다. 천제는 (다섯 개의 산이) 서쪽 끝으로 흘러가서 성인들의 거처가 없어질 것을 염려하여, (북극을 관장하는) 우강에게 명령하여 커다란 자라 15마리에게 머리를 들어 그 산을 지고 있도록 했다(渤海之東, 不知幾億萬里有大壑焉.……其中有五山焉. 一曰岱輿, 二曰員嶠, 三曰方壺, 四曰瀛洲, 五曰蓬萊. 其山高下周旋三萬里.……五山之根, 無所連著, 常隨潮波, 上下往還, 不得暫峙焉. 仙聖毒之,

風潮爭洶湧, 바람에 파도가 세차게 굽이치니
神怪何翕忽.[44] 신기한 그 변화는 어찌 그리도 빠른가.
觀奇跡無倪,[45] 그 기이한 모습 끝이 없듯이
好道心不歇. 도를 좋아하는 마음 식지 않네.
攀條摘朱實,[46] 나뭇가지 잡아 당겨 붉은 열매를 따서
服藥煉金骨.[47] 단약을 먹고 금골 되도록 단련하리라.
安得生羽毛,[48] 어찌해야 날개가 솟아나서
千春臥蓬闕.[49] 영원히 봉래산 궁궐에 누워 있을 수 있으리.

〈校記〉

다른 판본에는 제목에 '吳中'이란 두 글자가 없다.
제4구의 '滄島'는 '滄海'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5구의 '遠登覽'은 '登遠覽'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9구의 '洶湧'은 '洶洶'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16구의 '千春'은 '千秋'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詳釋〉

訴之於帝. 帝恐流於西極, 失羣聖之居, 命禺彊使巨鼇十五擧首而戴之)"라고 하였다.

44) 翕忽(흡홀) : 《文選・吳都賦》에 "신령한 변화가 매우 빠르고 그윽하게 숨겨져 있다가 찬란하게 빛나네(神化翕忽, 函幽育明)"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주석에서 劉良은 "翕忽은 변화가 매우 빠른 모양이다(翕忽, 變化疾速之貌)"라고 하였다.

45) 觀奇: 朱諫의 주석에 "觀奇는, 위 문장의 높은 곳에서 바라본 것을 이른다. 倪는 가장자리이다(觀奇, 卽上文憑高所見者也. 倪, 端倪也)"라고 하였다.

46) 朱實: 《山海經・西山經》에 "또한 서북 4백 20리에 밀산이 있다. 그곳에는 붉은 나무가 많은데, 잎사귀는 둥글고 줄기는 붉은데, 노랑 꽃잎에 붉은색 열매가 열리니, 그 맛이 엿처럼 달콤하여 그것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았다(又西北四百二十里嶓山, 其上多丹木, 員葉而赤莖, 黃葉而赤實, 其味如飴, 食之不飢)"라고 하였다. 陶淵明은 〈讀山海經〉에서 "노란 꽃에 붉은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을 먹으면 수명이 길어진다(黃花復朱實, 食之壽命長)"라고 하였다.

47) 服藥: 《抱朴子・金丹》篇에 "무릇 금단이란 것은 …… 사람의 몸을 단련시켜서, 사람을 늙지 않고 죽지 않게 할 수 있다(夫金丹之爲物, …… 鍊人身體, 故能令人不老不死)"라고 하였다.

48) 生羽毛: 날개가 생겨서 신선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49) 蓬闕: 朱諫은 "봉궐은 봉래산의 궁궐이다(鳳闕, 蓬萊之闕也)"라고 하였다.

www.kci.go.kr

천태산은 사명산과 이웃하여 두 산은 서로 가까운 곳에 있고, 우뚝 솟은 천태산 화정봉은 월 땅에서 우뚝 솟은 봉우리로다.

천모사의 문루는 적성산의 붉은 바위 위에 높이 솟아 있고, 누각엔 바다에 떠 있는 섬을 비추던 달도 쉬어간다.

봉우리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바로 아래로 드넓은 바다가 내려다보인다.

널리 드리운 구름은 마치 붕새가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을 뒤덮은 것 같고, 파도가 요동치니 거대한 자라가 잠겨서 요동치는 듯 하다.

거대한 파도가 돌풍에 사납게 용솟음쳤다 가라앉으며 세차게 굽이치는 그 신괴한 변화는 어찌 그리도 빠른가.

높은 곳에 올라 그 광경을 바라보니, 기이한 장관이 끝도 없이 펼쳐지듯, 도를 좋아하는 마음도 식지 않는다.

저 나뭇가지를 잡아 당겨 그 붉은 열매를 따서 단약을 만들어 먹고, 금골이 되도록 몸을 단련하리라.

어찌해야 날개가 솟아나서 높이 날아올라 신선들의 봉래산 궁궐에서 영원히 자유로이 노닐 수 있으리오.

〈解說〉

이백이 천태산에 올라 기이한 경치를 바라보며 감흥을 읊은 시이다. 詹鍈은 이백이 장안에 들어가기 이전 처음으로 會稽(浙江省 紹興縣 일대) 지역을 유람하던 시기에 지은 것으로 보았고, 安旗는 천보6년(747), 47세에 지은 것으로 보았다. 이백은 천태산에 여러 차례 오른 적이 있는데, 시어의 사용이나 시적 이미지로 보아 40대 이후에 지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 시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부터 제4구까지의 첫째 단락은 천태산 화정봉의 높이와 천태산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고, 제5구부터 제10구까지의 둘째 단락은 화정봉에 올라가 바라본 풍경을 묘사하고 있고, 제11구부터 제16구까지의 마지막 단락은 기이한 모습 끝이 없듯이 도를 좋아하는 마음 또한 식지 않는다며 신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우법을 잘 활용하고 있

www.kci.go.kr

고, 감정이 고조되어 있다.

6) 早望海霞邊 아침 일찍 바닷가 노을을 바라보며

四明三千里[50]	사명산 삼천리
朝起赤城霞[51]	아침 적성산엔 붉은 노을 떠오르네.
日出紅光散	해 떠올라 붉은 빛이 흩어지고
分輝照雪崖[52]	한 햇살은 하얀 폭포 비추네.
一餐嚥瓊液[53]	한번 선약 玉液을 마시니
五內發金沙[54]	오장에서 金丹 기운이 퍼지네.
擧手何所待	손짓하며 무엇을 기다리는가?
靑龍白虎車[55]	청룡 백호가 끄는 수레라네.

---

50) 주 37 참조.

51) 주 39 참조. 孔靈符의《會稽記》에 "적성산의 돌 색은 모두 붉어, 모양이 마치 새벽 놀 같기에, 또한 霞城이라고도 부른다(赤城山石色皆赤, 狀似晨霞, 亦謂之霞城)"라고 하였다.

52) 雪崖: 눈 덮인 낭떠러지의 뜻이나, 여기서는 天台山의 서남쪽 봉우리인 瀑布山의 남쪽에서 하얗게 떨어지는 폭포수를 가리킨다.《方輿勝覽》卷八에 "폭포산은 천태산의 다른 봉우리로, 폭포가 천 길이나 드리워져 흐르는데 그 소리가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아 보는 이는 이 때문에 떨게 된다(瀑布山, 乃天台山之別岫. 有瀑布垂流千丈, 聲若雷霆, 觀者爲之震掉)"라고 하였다.

53) 瓊液: 道敎에서의 불로장생 仙藥으로, 일명 玉液이라고도 한다.

54) 金沙: 도교의 불로장생 仙藥인 金丹을 가리킨다.《抱朴子・金丹》에 "무릇 金丹이라는 것은 그것을 오래 태울수록 변화는 더욱 오묘해 진다. 황금은 불에 넣어도 백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고 땅에 묻어도 영원히 썩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복용하여 몸을 단련하면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불로불사하게 할 수 있다(夫金丹之爲物, 燒之愈久, 變化愈妙. 黃金入火, 百年不消, 埋之畢天不朽. 服此二物, 鍊人身體, 故能合人不老不死)"라고 하였다. ○ 五內: 五臟을 가리킨다.

55) 靑龍白虎車: 청룡, 백호가 끄는 수레.《神仙傳》권3에 "심희는 吳郡 사람이다. 蜀에서 道를 배웠으며 단지 능히 재난을 물리치고 병을 고쳐주며 백성을 구제 할 줄 만 알았지, 선약을 먹을 줄은 몰랐다. 공덕이 하늘을 감동시켜 천신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 심희와 부인 가씨는 수레에 같이 타고 며느리인 탁공씨 집안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데 흰 사슴 수레 하나, 청룡 수레 하나, 흰 호랑이 수레 하나를 만났는데, 따르는 기병이 모두 십 여 명이었다. 모두가 붉은 옷을 입고 창을 집고 검을 들고 있었으며 번쩍이는 빛을 내며 길을 가득 채웠다. 심희에게 묻기를, '그대가 심희인가?' 하자, 심희는 깜짝 놀라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랐다. 대답하여 말했다. '그렇다. 어째서 묻는가?' 기병이 말했다. '그대

〈校記〉

제목의 '海霞邊'은 '海邊霞'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5구의 '嚥'은 '咽'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詳釋〉

사명산에 올라보니 산맥은 삼천리에 걸쳐 끝없이 펼쳐져 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저 멀리 보이는 적성산에는 붉은 노을이 물든다.

떠오르는 태양에 붉은 빛은 사방으로 퍼지고, 빛은 나뉘어져 눈 덮인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하얀 폭포수를 환하게 비춘다.

한 끼의 식사로 불로장생의 仙藥인 玉液을 마시니, 몸속의 오장육부에서는 金丹이 끓어오르며 신선의 몸으로 변하는 것 같다.

지금 내가 손을 높이 들고 흔드는 것은 무엇을 기다리기 위함인가? 그것은 그 옛날 沈羲를 신선의 세계로 인도해 갔던 度世君司馬生과 徐福이 타고 왔던 청룡 수레와 백호 수레를 기다리는 것이니, 그들과 함께 저 신선의 세계로 가고자 한다.

〈解說〉

시의 첫 구에서 "사명산 삼천리, 아침 적성산엔 붉은 노을 떠오르네(四明三千里, 朝起赤城霞)"라고 읊었고, 〈天台曉望〉에서는 "천태산은 사명산과 이웃하고(天台隣四明)"라고 읊거나 혹은 "산문은 적성산 붉은 빛을 띠고(門標赤城霞)"라고

는 백성들에게 공을 쌓았으며 마음은 늘 도를 잊지 않고 어려서부터 행함에 잘못이 없는데 수명이 길지 않아 목숨이 곧 다하려 하기에, 黃帝와 老子께서 지금 仙官을 내려 보내와 그대를 맞이하는 것이오. 侍郎 薄延之는 흰 사슴 수레를 타고 있고, 度世君 司馬生은 청룡 수레를 타고 있으며, 그대를 맞이하는 사신인 徐福은 백호 수레를 탄 분이오' 잠시 후 세 신선은 깃털 옷을 입고 부절을 들고 백옥간, 청옥책과 단옥자를 심희에게 주었는데 심희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몰랐다. 끝내는 심희를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沈羲者, 吳郡人. 學道于蜀中, 但能消災治病, 救濟百姓, 不知服食藥物. 功德感天, 天神識之. 羲與妻賈共載, 詣子婦卓孔寧家. 還, 逢白鹿車一乘, 青龍車一乘, 白虎車一乘, 從者皆數十騎. 皆朱衣, 仗矛帶劍, 輝赫滿道. 問羲曰, '君是沈羲否?' 羲愕然, 不知何等. 答曰, '是也. 何爲問之?' 騎人曰, '羲有功于民, 心不忘道, 自少小以來, 履行無過. 壽命不長, 年壽將盡. 黃老今遣仙官來下迎之. 侍郎薄延之, 乘白鹿車是也. 度世君司馬生, 青龍車是也. 迎使者徐福, 白虎車是也.' 須臾, 有三仙人, 羽衣持節, 以白玉簡、青玉冊、丹玉字, 授羲, 羲不能識. 遂載羲升天)"라는 전고가 있다.

노래한 것으로 보아, 이 두 시는 같은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일반적으로 天寶6年(747) 이백의 나이 47세에 會稽 지역을 유람하던 도중 천태산에 올라 그 감흥을 노래한 것으로 보여 진다.

시의 전반 4구는 사명산에 올라 내려다보이는 광활한 아침 놀 풍경을 묘사하였고, 후반 4구에서는 단약을 마시고 신선 수레를 기다리는 것 등의 묘사를 통해 신선 세계에 대한 흠모의 정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3. 결론

《이태백문집》의 '등람' 부분의 제1수부터 제6수까지 모두 6편을 원문과 함께 逐句 번역하고 註釋을 달았으며, 校記, 詳釋, 解說을 붙였다. 이백은 "신선을 찾으러 오악이 멀다 않고 다녔으며, 일생 동안 명산에서 놀기를 좋아했다(五嶽尋仙不辭遠, 一生好入名山遊)"라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평생 넓은 지역을 주유했고, 명산을 즐겨 찾아다녔다. 뿐만 아니라 사찰의 탑이나 도관의 누각을 올라 감회를 노래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그의 등람시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지역을 다니며 지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그 주제도 역사와 회고가 있는가 하면, 현실에 대한 비판이 있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가 하면 신선에 대한 동경이 있다. 또 산수에 대한 무한한 애착이 있는가 하면 종교에 대한 깊은 공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제1수는 성도의 산화루에 올라 본 주위의 풍광과 시인의 감회를 그린 것으로 이백 초기시의 표일하고 신선한 감각을 볼 수 있다. 제2수는 아미산에 오른 감흥과 신선에 대한 지향을 노래하였다. 제3수는 곡부에 있는 신농씨의 유적지인 대정고에 올라 춘추시대 노나라 대부를 그리워하고 현실을 돌아보았다. 제4수는 선보현(지금의 산동성 선현)의 반월대에 올라 아름다운 가을 풍광을 노래하였다. 제5수는 천태산에서 새벽에 바다를 바라보며 신화의 세계를 연상하고 신선에 대한 꿈을 펼쳤다. 제6수는 사명산에 올라 신선 세계를 그리워하였다. 이들 시들은 대

www.kci.go.kr

부분 오르는 장소나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묘사와 함께 시인의 깊은 정서적 반응을 결합시키고 있어 심미적인 요소가 강하다. 등람의 행위를 통해 현실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동시에 대상을 객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이해를 재조정할 수 있고 시인의 희망을 새로운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등람시는 이백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王琦 輯注,《李太白詩集注》, 北京, 中華書局, 1977.
瞿蛻園・朱金城,《李白集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宋敏求・曾鞏 等編,《李太白文集》, 成都, 巴蜀書社, 1985.
安旗 主編,《李白全集編年注釋》, 成都, 巴蜀書社, 1990.
彭定求 等編,《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92.
郁賢皓,《李白大辭典》, 桂林, 廣西敎育出版社, 1995.
詹鍈 主編,《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陳伯海主編,《唐詩彙評》, 杭州, 浙江敎育出版社, 1996.
陳貽焮主編,《增訂注釋全唐詩》,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2001.
蕭士贇,《分類補注李太白詩》,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丁放, 袁行霈,《盛唐詩壇硏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2.
郁賢皓,〈李白'古風'五十九首芻議〉,《中國文學硏究》, 1989年 4期.
袁行霈,〈李白'古風'其一再探討〉,《文學評論》, 2004年, 第1期.
薛天緯,〈聖代復元古, 大雅振新聲-李白古風其一再解讀〉,《江淮論壇》, 2012年, 1月.

〈中文提要〉

本论文旨在探讨为李白《登览》中6首(第一首至第六首)而做的翻译、校记、详释与解说。李白诗歌的原文以"宋蜀本"为蓝本, 校勘时主要参考詹锳主编《李白全集校注汇释集评》。

第1首是李白游成都时登锦城散花楼而作。此诗分三段, 第一段描写了散花楼的美丽, 第二

www.kci.go.kr

段描写了散花楼所见远近的景象，第三段表现了登楼观感。

第二首是李白二十岁游峨眉山时之作。此诗分四段，第一段描写了峨眉山的秀丽，表现了其他仙山难以与峨眉山相匹敌，第二段先描写了峨眉山的独特怪异的风光景致，而后表现了李白恰如得到了成仙之术，第三段表现了在峨眉山的修道情境与要结束人间喜悦的心情，第四段表现了升天成仙与超脱凡尘。

第三首是李白寓居东鲁时登大庭库而作。此诗分两段，第一段描写了李白自己与春秋时期鲁大夫梓慎同样登上大庭库，想效法梓慎望云气辨认天运变化的迹象，第二段先描写了所见及所闻的，而后感慨当年的帝王之业到如今终于消失。

第四首是李白从东鲁南下越中时登半月台而作。此诗分三段，第一段称赏了陶少府筑半月台，第二段描写了登半月台所见的风光，第三段写了水色使人怀念镜湖，在此徘徊逗留。

第五首是李白登天台山观奇景而作。此诗分三段，第一段描写了天台山华顶峰之高与天台山的景象，第二段描写了登上华顶峰所见风景，第三段认为奇观之迹没有边际，自己好道之心决不会停止，表现了羽化登仙之思。

第六首与第五首同时所作，登上四明山表现了诗人的慕仙之心。此诗分两段，第一段描写了登上四明山观看四明山与日出的景色，第二段通过饮咽丹药，等待青龙白虎车，抒发了慕仙之心情。

总之，6首大都将对登上的地方或者观看的对象的描写，与诗人深刻的情绪反应相配合，有着很强的审美性质。

關鍵詞: 李白,《登覽》, 飜譯, 校記, 詳釋, 解說

이 논문은 2014년 7월 15일에 접수되어 2014년 8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4년 8월 15일에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www.kci.go.kr

www.kci.go.kr